

세계를 건디기, 속물성을 문제 삼기

호영송 · 김이구 · 은희경의 소설집을 읽고

권보드래

문학평론가

속물이 되기는 쉽다. 스물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속물의 생활이라면, 혹은 적당한 자기 기만에 취해 사는 것이 속물의 생리라면, 정말이지 속물이 되기란 어렵지 않다. 겨우 가난의 불편함을 면한 생활에서부터 성공한 자의 무절제한 탐욕에 이르기까지, 속물이라는 말은 여러가지를 가리키는 편리한 용기(用器)이다.

속물이라는 말은 이념/생활, 예술/생활의 오래된 대립항을 상기시키며, 동시에 속물/비속물이라는 좀더 모호하고 느슨한 대립의 쌍을 끌어들이고, 그럼으로써 대립의 각 항들 사이에 있는 교통(交通)과 공모를 덮어버리기도 한다. 특히 이념/생활이나 예술/생활의 대립항에서 한쪽에 절대적 우위를 두지 못하게 될 때 '속물성'의 문제가 차지하는 위치는 문제적이다.

‘속물성’에 대한 탐구

호영송의 《유쾌하고 기지에 찬 사기사》(책세상)는 속물성의 세계에 발 담그기 시작한 예술가의 초상을 보여주고 있다. 1970-80년대에 <파화의 안개>, <시인 왕거인> 등 정치 권력의 폭압에 저항하는 예술가 상을 보여주었던 호영송에게 있어 이는 큰 변화이다. 1995년 발표한 장편 《내 영혼의 적들》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머릿속과 심장 속에 군홧발소리 울리며 진주” 해 온 이들을 ‘적’이라 불렀던 작가에게 언제 이런 변화가 생겨난 것일까.

《유쾌하고 기지에 찬 사기사》를 훑어보다 보면 《내 영혼의 적들》이 오히려 예외적인 작품임을, 1990년대 중반에 와서 1970-80년대를 바라본다는 회고의 시각이 그런 예외를 가능하게 했음을 가늠할 수 있게 된다. 호영송은 이미 <열리지 않는 술병>(1981)과 <어느 시인의 죽음>(1983)에서부터 정치-이념이라든가 예술-정신에 대한 믿음을 잃은 예술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열리지 않는 술병>의 희곡 작가 오두채에게 있어 나날의 생활은 삶과 죽음, 존재에 대한 명료한 인식을 삼켜가는 늪이고, <어느 시인의 죽음>의 소일청은 민중시인이라는 굴레에 잡혀 시를 잃어가는 동시에 아내가 보여주는 속물성의 세계에 고통을 겪는다.

세권의 소설집은 ‘속물성’을 탐구하면서 서로 다른 접근방식을 보여준다. 호영송은 속물성의 세계에 발을 담그기 시작한 예술가의 초상을 그렸다. 김이구는 속물성의 잣대를 자신에게 거누고 있으며 은희경은 속물성을 존재의 조건으로 수용한다.

여기에 이르면 일그러진 현실에 맞섬으로써 일그러진 언어를 바로잡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위태로운 생활인의 자리가 가까워서 입을 벌리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 와서 작가는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었던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버린다. <작은 거인>에서 독특한 민중 연극을 선도하다가 전향, 대중적인 스타가 된 이명조는 처음부터 그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나’의 눈으로 비추지고 있으며, <유쾌하고 기지에 찬 사기사>에서도 부도덕한 소설가 송광수는 친구 방호석에 의해 무참한 공격을 받는 처지에 놓인다. 자기비판 대신 풍자가 자리 잡고, 성찰의 용어였던 ‘속물성’은 공격의 무기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김이구의 《사랑으로 만든 집》(솔출판사)에서 의심쩍은 시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평화의 땀 문제를 다룬 <성금>이나 출판 노동자 운동을 다룬 <꿀맛>에서 시사적(時事的)인 문제를 개인적 성찰로 연결시키는 능력을 보여준 작가에게 있어서도 이념-정치라는 자장의 해체는 힘겨운 것이었던 모양이다. <붉은 수수밭>에서 무참한 시인의 사진 한 장으로 일상에서 깨어나는 충격을 받던 젊은 가장은 좀더 나이 들어, <사랑으로 만든 집>이나 <유랑, 경마장에 다다르는데>에 이르러서는 생활에 끌려가는 자신을 쓸쓸한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볼링장이나 노래방을 순례하고, 아반떼나 무쏘를 탐내는 아이들의 청을 들어주고픈 아버지가 된 그는, 그



러나 그렇다고 “자가용족을, 암암리에 상당히 적대하고 혐오”하던 기억으로부터 자유롭지도 못하다. 20대를 1980년대와 나란히 병렬시키고 이제 30대 후반에 들어서서 거리를 맴돌고 공중을 허청허청 휘저을 뿐이지만, 이제는 다른 땅도 보이지 않으므로, 그는 발 붙이지 못한 채로 이 거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

위선과 분식으로서의 삶

하지만 《타인에게 말 걸기》(문학동네)의 작가 은희경에게 속물성은 변화된 조건이 아니라 살아가는 일에서 피할 수 없는 덩이다. 장편 《새의 선물》에서 “열세 살에 세상을 다 안”, 그렇기 때문에 “삶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끔 자란 주인공을 내세웠던 은희경은 《타인에게 말 걸기》에서도 위선과 분식(粉飾)이 삶의 기본적인 생리임을 역설한다.

<김작과는 다른 일들>이나 <특별하고도 위대한 연인>에서, 사소한 우연을 우연 이상으로 만드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어긋남과 오해이며 끝없는 위장의 기도이다. 모든 이해란 오해이며, 그 때문이라도 타인을 향한 제스처는 ‘상처받지 않을 것’을 지상 목표로 하는 위장술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작가는 때로 이런 유희에서 벗어나려는 인물들을 보여주지만, 통상적인 궤도 밖의 존재들 역시 불운에서 벗어날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절박한 연애도, 타인에게 다가가려는 필사적인 시도도 이 세계에서는 결국 배반당하고 만다.

그리하여 어디에도 출구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하려는 양, 은희경은 대조적인 삶의 방식을 택한 두 인물이 똑같이 막다른 곳에 이르게 된다는 <연미와 유미>나 <타인에게 말 걸기> 같은 구도를 종종 보여주고 있다. 진정한 이해-관계가 불가능하다는 절망은 은희경의 주인공들이 공유하고 있는 독특한 색채이다. 그러나 자칫 설익은 허무로 떨어질 수 있는 이 절망이 서사적인 무게를 얻는 것은 작가가 보여주는 이야기꾼으로서의 탁월한 자질 때문이다.

《새의 선물》에서도 그러했듯이, 은희경의 매력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절망의 토로라기보다는 날카로운 관찰자로서의 저력이다. ‘여성’을 내세우지 않으면서 여성을 이야기하는 데 놀라운 솜씨를 보여주는 <빈처>나 <먼지 속의 나비>,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의 밑바닥을 알 수 없는 신비와 달콤함”과 “어디를 가든 외로”운 “다정함에 주린 사람”을 동시에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는 <연미와 유미>만으로도 《타인에게 말 걸기》는 기억할 만하다. 속물성-탐욕과 부정적을 존재의 어쩔 수 없는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대가로 그 허울을 뚫어볼 수 있는 시각을 갖춤으로써 작가는 뛰어난 이야기꾼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

- 호영송 지음 《유쾌하고 기지에 찬 사기사》 책세상/A5신/290면/6500원
- 김이구 지음 《사랑으로 만든 집》 솔출판사/A5신/300면/6500원
- 은희경 지음 《타인에게 말 걸기》 문학동네/A5신/360면/6500원